

# 羅末麗初詩의 晚唐의 影響에 대하여 \*

閔丙秀

## 1. 序 言

우리나라 詩人們에 의하여 제작된 漢詩는, 그것이 漢字로 記錄되었더라도 물론 우리 詩다. 읽고 새기는 방식도 모두 우리들의 것이며 그 속에 담겨진 智慧와 삶의 모습도 모두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詩의 原產地인 中國詩와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漢詩만을 따로 論議하려는 漢詩의 연구 작업은 처음부터 空虛한 것이 되기 쉽다. 특히 唐宋兩代의 中國詩는 사실상 우리나라 漢詩의 모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漢詩의 역사적인 연구에 있어, 이것들에 대한 理解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초 작업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漢詩를 배우기 시작한 新羅末 遊學生들의 詩修業이 바로 晚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승한 高麗初期 騷壇의 基盤도 따지고 보면 前時代의 風尚을 그대로 踪襲하는데서 形成되고 있다. 本稿에서 유독 晚唐을 문제 삼게 된 것도 이러한 文學史의 現實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晚唐의 性格도 詩人에 따라 서로 그個性의 빛깔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시인의 경우를 例로써 보더라도, 李商隱은 官界의 落伍者가 되어 꿈 같은 懷愛詩에 자신을 감추고 있으며 그의 隱隱한 象徵의 手法은 독특한 경

\* 國語國文學科 副教授

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蕩遊에 몸을 맡긴 頽廢詩人 溫庭筠은 詩題부터 繺靡한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杜牧은 盛唐詩의 높은 格調를 이어 받고 晚唐詩壇의 風流를 包攝하여 독자적인 詩徑을 개척하고 있다. 羅隱은 諷喻詩로써 뉴앙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司空圖·鄭谷 등은 아름다운 抒情의 小景을 노래하고 있다. 晚唐의 마지막을 장식한 韋莊은 初唐과도 비슷한 艷麗한 詩風으로 일관하여 篇篇이 곱기만 하다.

그러나, 나라와 詩가 함께 衰微해진 晚唐의 時代 風尚이 柔靡輕佻에로 흐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盛唐·中唐과 같은 氣魄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雄壯한 規模도 찾아 보기 어렵다. 때문에 形式에 있어서도 長篇보다는 即興偶成의 短詩 即 七絕이 압도적으로 優勢를 보인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羅末麗初詩의 一般的인 性格을 살피고, 다음으로 이 詩期의 詩業에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晚唐의 대표작을 一瞥하여 그 距離를 测定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전반적으로는, 個別 詩作에서 보여 준 全篇의 雾圍氣를 읽었으며, 부분적으로는 詩作의 最少 單位인 詩語를 點檢하여 그 踵襲與否를 문제 삼아 보았다.

그리나 이러한 安易한 接近조차도 試圖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므로 우선 손쉬운 방법에서부터 엄두를 낸 것이다.

## 2. 羅末麗初詩의 性格

羅末麗初는 王朝史에서도 서로 겹치는 기간이 18년이나 되거나와, 文學史의 현실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그 性格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이 時期는 우리나라 漢詩文學이 본격적으로 中國을 배운 역사 段階라는 점에서 한데 묶여 질 수 있는 共通性을 가진다. 新羅末에 唐에 들

어가 직접 中國詩를 배운 入唐 遊學生과, 이들이 이룩한 詩業에 힘입어 간접으로 中國詩를 체험하게 되는 高麗初期 一群의 詩人們이 당시의 風尚인 晚唐을 배운 것이 이 시기 漢詩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宗直이 그의 「青丘風雅序」<sup>1)</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사실을 확인케 해 준다.

우리나라의 詩를 읽어 보면, 그 格律이 무려 세번이나 변했다. 新羅末 高麗初에는 오로지 晚唐을 践襲하였고 高麗中葉에는 오로지 東坡를 배웠다. 그 末期에 이르러 益齋諸公이 舊習을 조금 變改하여 雅正하게 다듬음으로써 朝鮮王朝에 이르러서도 그 軌道를 그대로 따랐다.

得吾東人詩以讀之 其格律 無慮三變 羅季及麗初 專襲晚唐 麗之中葉 專學東坡  
迨其叔世 益齋諸公 稍變舊習 戒以雅正 以迄于盛朝之文明 猶循其軌轍焉

이라 하여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羅末의 遊學生들이 大量으로 中國에 들어갈 당시에 唐도 이미 國勢가 衰微해진 唐末이었으므로 이들이 晚唐을 배운 것은 自然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唐을 배우면서도 바로 앞 時期의 格調 높은 盛唐을 건너뛰고 오히려 紹麗한 六朝詩에 關心을 보이었으며, 그들의 詩作에도 六朝風이 濃厚하다. 특히 散文에 있어서는 雲養 金允植이 그의 「答人論青丘文章源流」<sup>2)</sup>에서

옛날 三國中葉이후 公用 文書는 모두 文選을 의방하여 任強首 崔致遠 등이 두드러진 者다. 高麗初에 이르러서도 그러하였으나 名臣들의 章·奏와 碑文에는 가끔 兩漢의 氣味가 있어 후세의 비칠 바가 아니다. 그 末期에 이르러 益齋·稼亭·牧隱諸公이 古文의 新辭를 倡導하여 크게 세상에 울렸다.

在昔 三國中葉以後 公用文書 皆倣文選 如任強首崔文昌 其顯者也 至麗初猶然而名臣章奏及碑版之作 往往有兩漢氣味 非後世所及 及其季世 益齋稼亭牧隱諸公倡爲古文新辭 大鳴於世

1) 金宗直, 青丘風雅는 그 序文이 불어 있는 것이 드물다. 筆者が 본 國立圖書館所藏本은 印墨이 鮮明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磨滅된 부분이 많아 여기서 引用한 것은 判讀이 가능한 앞부분만 보인 것이다.

2) 金允植, 雲養續集 參照

과 한 바와 같이 모두 文選文을 익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傳하고 있는 崔致遠의 散文文章이 대부분 翻儒文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이 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물론 六朝時代의 模範文章集이라 할 수 있는 文選이 太學의 教材로서 또는 科試의 科目으로 채택되고 있었으므로 文選文이 당시의 文學修業에 그 모델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詩를 對하는 詩人の 關心과 趣向의所在다. 崔致遠은 그의 代表作 「登潤州慈和寺」<sup>3)</sup>詩에서 봄을 맞는 金陵방의 抒情을, 謝靈運으로 대표되는 謝氏一家의 餘景에다 接續시키고 있다. 崔承祐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送陳策先輩赴邠州幕」<sup>4)</sup>詩에서 福衡의 詞賦와 陸機 같은 文章의 솜씨로 두번씩이나 陳策先輩가 科舉에 及第한 사실을 칭송하고 있다. 이 밖에도 崔致遠은 高駢에게 올려 바친 七言記德詩 30首中 「雪詠」<sup>5)</sup>과 같은 작품에서는, 高駢의 詩를 추어 올리면서도 그 基準은 謝氏一家와 對比시키고 있다.

이로써 보면 純麗한 六朝詩가 羅末麗初의 詩人們에게 崇尚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은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 漢詩가 본격적으로 中國을 배운 것이 唐末이기 때문에 당시의 風尚인 晚唐을 받아 들인 것도 자연한 일이며, 六朝의 純麗와 晚唐의 純靡가 사실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修辭技巧에 用工할 수밖에 없는 習作過程의 入唐遊學生들이 六朝의 裝飾美에 쉽게迎合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더우기 初期의 習作過程에서부터 格調 높은 盛唐을 배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이후의 詩作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러하다.) 또 詩를 崇尚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바로 前時期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詩의 內質에 있어서도 晚唐과 그 이전의 唐詩

3) 2·1. “崔致遠과 羅末의 遊學生들”項 參照

4) 福衡詞賦陸機文 再捷名高已不群(以下略)

5) 五色毫編六出花 三冬吟徹四方誇 始知絕句勝聯句 從此芳名掩謝家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杜甫나 韓愈·白居易 등의 時代까지도 이들은 政治力으로 나라를 救하려는 意志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詩에도 反映되고 있지만, 晚唐의 詩人們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큰 뜻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으며, 분명한 것은 詩를 짓는 즐거움 그것 만이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晚唐을 배운 당시의 詩人們이 盛唐을 전너 뛰어 스스로 六朝詩에 近接하고 있는 所以를 여기서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詩形의 選擇에 있어서는 대체로 七言이 우세하며 특히 律詩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崔致遠의 경우에도 작품의 전체에서 보면 絶句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名篇으로 알려진 작품 가운데는 七言律詩가 많다. 우리나라 漢詩가 일반적으로 絶句보다는 律詩, 五言보다는 七言에 名作이 많은 것과 同軌의 현상이다.

물론 晚唐의 名篇 가운데는 絶句가 많다. 특히 晚唐의 風流를 한눈으로 읽을 수 있는 杜牧의 詩作을 비롯하여, 鄭谷·高駢·溫庭筠·韋莊·羅隱·張泌 등에게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라와 詩가 함께 衰微해진 晚唐에서 長篇을 뽑아 낼 底力이나 餘裕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晚唐의 繖巧가 短型의 絶句를 즐겨 선택한 것도 오히려 자연한 趨勢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現存하는 羅末麗初詩의 대부분이 入唐遊學生들의 初期作이거나 또는 그 基盤 위에서 成立된 麗朝詩의 倡始者들의 것이고 보면, 詩를 익히는 習作過程에서 直截한 絶句 形式으로 名篇을 製作하기란 결코 容易하지 않았을 것이다. 内容에 있어서도 대체로 뜻을 이루지 못한 作者 자신을 悔恨하고 있거나 懷古的인 感傷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작품을 다루는 곳에서 다시 論議할 것임) 懷慨와 悲愁를 繖細한 美感으로 표현하려는 苦心을 읽을 수 있으나, 詩에 没入함에 있어 대체로 視野가 좁아 微小한部分 描寫에서 華靡를 보여 줄 뿐이다. 全篇을 통하여 典故를 過多하

게 使用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現象이기도 하지만, 意思를 運搬하는 氣力이 微弱하여 당초의 緊張이 中途에서 破碎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때문에 用工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形式과 內容이 緊切하게 連結되지 못하고 있어 艷麗한 抒情을 노래한 작품으로 成功한 事例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個別 作品을 檢證하는 과정에서 다시 言及될 것이다.

### 2·1. 崔致遠과 霍末의 遊學生들

崔致遠이 唐에 遊學할 당시에는 이미 遊學生의 數가 數百名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後世까지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은 不過 10餘人이며, 이들 가운데서도 詩文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은 崔致遠·崔匡裕·崔承祐·朴仁範·崔彥撝(仁浪)등이 있을 뿐이며, 특히 崔彥撝는 崔致遠·崔承祐와 더불어 “三崔”로 불리운 文章家로서 高麗가 建國한 뒤에도 文翰의 任을 도맡아 宮殿 樓閣의 額號를 모두 그가 撰定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文字들은 傳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高麗 忠肅王 6年(1337)에 刊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十鈔詩(夾注名賢十鈔詩)에 그들의 詩篇을 전하고 있는 崔匡裕·崔承祐·朴仁範 등이 崔致遠과 더불어 우리나라 詩史에 중요하게 寄與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高麗初까지도 生存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崔承祐가 麗初에 文章으로<sup>6)</sup> 그의 行蹟을 남기고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麗朝에서의 足跡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晚唐과의 影響 關係를 考慮하여 崔致遠·崔匡裕·朴仁範의 詩作만을 다음에 보이기로 한다.

崔致遠(憲康王 1, 857~?)을 알게 하는 傳記的 資料로는 三國史記 이상의 것이 없지만, 자신이 쓴 여러 篇의 文章을 통하여 보다 詳細한 人間 境涯의 報告를 들을 수 있다. 그의 家系는 聖骨·眞骨 다음의 貴族階級인 六頭品 出身이며 아버지 肩逸과 從弟 彥撝, 從姪 光胤(彥撝의 子) 등이 모두 당대의 文章家였던 것을 보면, 崔致遠은 文章家의 門庭

6) 崔承祐, 代柬董寄高麗王書(東文選所收)

에서 또 文章이 나온 셈이다.

崔致遠의 著作은 桂苑筆耕集 20卷과 還國 이후에 著述한 약간의 詩文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著作은 대부분 在唐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며 現存하는 桂苑筆耕集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桂苑筆耕集의 序文에 따르면, 그가 高聯의 筆硯을 담당한 4年 동안에 지은 글만 해도 1萬首가 넘는다고 했으며, 그 이전의 受學期間에도 各體의 詩作이 數卷에 이르렀다고 친술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習作期의 詩文은 대부분 폐기하고 그 精華만 모은 것이 桂苑筆耕集임을 알 수 있다.

近年에 이르러 여러 차례 崔致遠의 文集이 간행되어 國內外 文獻에 散在해 있는 遺文의 收拾이 일단 마무리된 듯하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詩文을 收錄하고 있는 國譯孤雲先生文集에 따르면 現傳하는 崔致遠의 詩文은 詩 115首, 文 353편으로 集計된다. 우리나라 文集의 대부분이 詩로써 채워져 있는 史實에서 보면 최치원의 경우, 文이 詩보다 壓倒的으로 優勢하며 그가 才能을 발휘한 것도 散文이었던 것 같다. 李奎報가 그의 白雲小說에서

崔致遠孤雲 有破荒之大功 故東方學者 皆以爲宗(中略) 如黃巢檄一篇 雖不載於中國書籍(中略) 如非泣鬼驚神之手 何能至此 然其詩不甚高 豈其入中國 在於晚唐後……

라 한 것도 文章 쪽을 높이 산 것이다. 이 밖에도 최치원의 詩文評은 대체로 否定의 側面이 強하지만 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成倪은 그의 儻齋叢話에서

我國文章始發揮於崔致遠 雖能詩句意不精 雖工四六而語不整

이라 하여 그의 詩文이 外飾에 치중하고 있음을 간접으로 示唆하고 있다. 물론 그의 봇끝에 完全한 詩人이나 文人이 일찌기 있은 일이 없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朝鮮中期의 許筠은 특히

崔孤雲學土之詩 在唐末亦鄭谷韓偓之流 率佻淺不厚<sup>7)</sup>

라 하여 그의 詩를 晚唐의 浮薄과 同流의 것으로 斷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詩는 東文選을 비롯하여 靑丘風雅·賀雅·大東詩選 등  
歷代의 重要詩選集에 29首나 選拔되고 있어 開山始祖로서의 面貌가 跳然하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秋夜雨中」(五絕)을 비롯하여, 「臨鏡臺」(七絕)·「贈金川寺主人」(七絕)·「芋江驛亭」(七絕)·「贈智光上人」(五律)·「夜贈樂官」(五律)·「酬楊瞻秀才」(七絕)·「和張喬」(七律)·「江南女」(五古) 등은 대부분 20代 在唐 시절의  
작품이지만 前記 詩選集에서 모두 뽑아 주고 있으며, 이 밖에도 「登潤州慈和寺」(七律)·「題伽倻山」(七絕)이 靑丘風雅에서는 外面을 당했지만  
자주 話題에 올랐던 작품이다. 「秋夜雨中」「登潤州慈和寺」를 차례로 보  
이면 다음과 같다.

〈秋夜雨中〉

가을 바람에 이렇게 애써 읊고 있건만

세상 어디에도 알아 주는 이 없네

창밖엔 깊은 밤 비 내리는데

동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

秋風唯苦吟 世路少知音

窗外三更雨 燈前萬里心

漢詩에서는 흔히 題目을 먼저 읽으라고 한다. 이 詩는 바로 이러한  
敎訓을 다시 확인케 하는 작품이다. 가을과 밤과 비의 만남이 포개어져  
화려한 꿈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去勢되고 있다. 때문에 그가 힘들여  
의혀온 浮華한 修辭의 솜씨도 엄무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許筠이 이  
詩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것도 이 작품의 雅麗를 높이 산 것인지 모른

7) 許筠, 惺叟詩話 參照

다. 窓과 등불이 어울리어 閑寂한 秋夜長의 분위기를 끌어냄직도 하지 만, 그러나 “萬里心”에 이르러 詩人의 모든 것은 끝나고 荒涼만이 있을 뿐이다. 혼히 結句의 “燈前萬里心”에 끌리어, 萬里 他國에서 故國을 그린 작품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還國할 무렵의 新羅는 眞聖女王의 亂政으로 國運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에게 救國에의 意志나 현실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이미 문제 밖에 있었다. 정작 그가 長安 旅舍에서 지은 「長安旅舍與于慎微長官接隣有寄」에서는, 알아 주는 이 없는 異國 生活의 외로움을 “他鄉少知己”로 나타내고 있다. 桂苑筆耕集에도 이 「秋夜雨中」은 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豫料되는 主題도 作者의 蘊抱를 容納해 줄 세상을 만나지 못한 現實에 대한 悔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詩情은 五言絕句 「郵亭夜雨」<sup>8)</sup>에서도 흡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登潤州慈和寺上房〉

높은 곳에 올라서 잠간 동안 속세와 멀어지는가 싶더니  
홍망을 되씹으니限이 더욱 새롭구나

畫角소리 가운데 아침 저녁 물결은 흘러 가고  
푸른 산 그림자 속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지나간다.

玉樹에 서리 치니 꽃은 임자 없고  
金陵땅 따뜻하니 풀은 혼자 봄이로다.

謝氏家의 남은 경치 그대로 살아 있어  
오래동안 詩客으로 하여금 정신 상쾌하게 하네

登監舊隔路岐塵 吟想興亡恨益新  
畫角聲中朝暮浪 青山影裏古今人  
霜摧玉樹花無主 風暖金陵草自春  
賴有謝家餘景在 長教詩客爽精神

흔히 潤州慈和寺詩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景物詩는 대개 寫景을

8) 旅館窮秋雨 寒窓靜夜燈 自憐愁裏坐 直箇定中僧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이 詩는 首聯에서부터 促急하게 情 을 앞세워 懷古의in 感傷에 흐르고 있으며 修辭에도 用工하고 있는 혼 적이 역력하다. 頷聯에 이르러 徐緩하게 풀어 주면서 이 작품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여 준다. 時間과 空間을 對應시키면서 無常을 읊조리고 있다. 時間을 알려 주는 畫角 소리 울리는 가운데 아침 저녁 흐르는 물은 다함이 없고 무른 산 그늘 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자취는 끊임없이 지나가고만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다. 그러나 頷聯이 너무 높아 다시 頸聯과 尾聯을 이어 나가기에는 이미 氣力이 衰盡하고 있는 느낌이다. 全唐詩逸卷에도 이 頷聯이 登載되어 있고, 李奎報의 白雲小說이나 徐居正의 東人詩話에서 유독 이 頷聯만을 摘示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崔匡裕는 新羅末의 學者로서 唐에 유학하여 崔致遠·崔承祐·朴仁範 등과 더불어 新羅十賢으로 불리었다는 사실밖에는 그를 알게 하는 傳記 資料는 찾아 볼 수 없다. 十鈔詩를 비롯하여 그 뒤의 각종 詩選集에 10首의 詩가 전하고 있으나 이들 詩選集에서 모두 뽑아 주고 있는 것은 「長安春日有感」(七律)과 「憶江南李處士居」(七律) 2首다. 「長安春日有感」은 다음과 같다.

布衣의 몸으론 거리의 먼지 털기 어려운데  
흰 머리 쇠한 얼굴 새벽 거울이 새롭구나

上國의 좋은 꽃은 시름 속에 아름답고  
故國의 꽃다운 나무는 꿈 속의 봄일려라

扁舟 의위 저녁에 바다로 떠날 생각  
여원 말 타고 關河에서 나루 물기도 지쳤네

아직도 燠雪의 뜻 이루지 못했으니  
버드나무 꽈꼬리 소리도 내 마음 상하게 하네

麻衣難拂路岐嶇 曾改顏表曉鏡新  
上國好花愁裏艷 故園芳樹夢中春

扁舟煙月思浮海 賦馬關河倦問津  
祗爲未酬螢雪志 緑楊鶯語大傷神

長安에서의 봄맞이를 읊은 것이다. 늦도록 科舉에 오르지 못하여 벼슬도 하지 못한 布衣의 몸으로, 새벽에 거울을 들여다 보다가 흰 머리가 돌아난 자신의 모습에 놀란 詩인의 獨白이다. 異國 정서가 포개어져 濁度를 짙게 해 준다. 修飾에 공을 들이어 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首聯에서 提示한 자신의 처지를 쉽게 尾聯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首聯은 唐 李商隱의 「無題」詩 “曉鏡但愁雲鬢改 夜吟應覺月光寒”의 句를 연상케 하거니와 아직 科舉에 오르지도 못한 處地에 “鬢改顏衰 晓鏡新”을 무념하고 있는 것은 無理와 飛躍을 自招하고 있는 느낌이다.

朴仁範은 崔匡裕·崔承祐 등과 入唐 修學하여 賓貢으로 及第한 學者요 文人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朴仁範의 詩는 특히 높은 評價를 받았다. 崔致遠은 그의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에서

(前略)顧雜林之士子 特令朴仁範金運兩人 雙飛鳳里 對躍龍門……伏以朴仁範  
苦心爲詩 金運克己復禮<sup>9)</sup>……

라 하여 詩業에 專念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李奎報도 白雲小說에 서, 崔孤雲의 「登潤州慈和寺」詩와 朴仁範의 「涇州龍朔寺」詩, 朴寅亮의 「泗州龜山寺」詩 등 三子詩가 中國의 文壇을 울렸다고 하였으며, 徐居正도 그의 東人詩話에서 “我東人之以詩鳴於中國 自三君子始”라 하여 朴仁範의 詩名을 崔致遠과 同列로 認定하였다. 그의 벼슬은, 詩選集의 記錄에는 著作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史記에서는 事實을 逸失하여 立傳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의 詩는 十鈔詩를 비롯하여 그 밖의 詩選集에 10首가 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涇州龍朔寺」·「九成宮懷古」·「江行星張秀才」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涇州龍朔寺」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東文選 卷47 所收

나는 듯한 仙閣이 푸른 하늘에 우뚝 솟아  
月宮의 피리소리 역력히 들려 온다.  
  
 동불은 반딧불인양 새가 다니는 길을 비추고  
사닥다리는 무지개 드리운 뜻 바위 門에 닿았네  
  
 사람은 흐르는 물 따라 어느 매나 다하고  
대나무는 寒山을 둘러 萬古에 푸른 것을  
  
 是非와 空色의 이치를 시험삼아 물었더니  
백년 동안의 맷한 시름 그 자리에서 깨는구나.  
  
 豉飛仙閣在青冥 月殿笙歌歷歷聽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到巖局  
 人隨流水何時盡 竹帶寒山萬古青  
 試問是非空色理 百年愁醉坐來醒

三韓詩龜鑑과 東文選에는 각각 「涇州龍朔寺閣」·「涇州龍朔寺閣兼東雲  
栖上人」으로 標題되어 있는 이 작품은 앞에서 보인 李奎報의 白雲小說  
과 徐居正의 東人詩話에서 특히 領聯의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落岩  
局(到가 落으로 되어 있음)의 句를 드러내어 稱頌하고 있으며, 崔灝도  
그의 三韓詩龜鑑에서 領聯과 頸聯에 批點을 行하고 있는 것을 보면 繼  
麗한 表現技巧가 이들의 眼光을 사로 잡았던 모양이다. 目前의 寫景에  
서부터 쉽게 풀어나간 이 작품도 領聯과 頸聯이 너무 높아 사실상 이  
詩는 頸聯에서 끝나고 있는 느낌이다.

## 2·2. 麗朝詩의 倡始者量

羅末의 文臣으로서 麗初의 文化建設에 協贊한 崔彥撝·崔知夢·崔  
凝·泰評 등의 儒者들과 破閑集·補閑集 등에 이름을 傳하는 一群의 文  
學之士가 麗朝詩를 倡始한 先驅者들이다. 崔灝가 그의 東之之文序<sup>10)</sup>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高麗의 開國으로 三韓이 歸一되었지만 衣冠典禮  
는 新羅의 그것을 踏襲하였다. 따라서 驅壇의 風土도 이후 200餘年 동

10) 崔灝, 淳善千百 所收

안 羅末에서부터 익혀 온 晚唐의 風尚이 그 대로 지배하게 된다.

高麗太祖가 武略으로 建國하였지만, 佛教信仰과 儒教治國으로 基本性格을 굳힌 것은, 이때까지의 儒教가 思想儒教가 아닌 基本儒教, 다시 말하면 通經明史와 같은 儒者의 일상적인 글 공부가 곧 文學修業으로 발전하는 文學儒教<sup>11)</sup>의 수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羅末의 文學儒者인 崔彥撝·崔知夢·崔凝 등을 등용하여 文治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사실로 보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이 文學儒教로 立國한 高麗 文化的 方向은 文學風土의 成就에 있어서도 그대로 중요하게 구실하게 된다. 建國 初期에는 文物制度의 整備와 政治的 安定의 追求 등 文化建設의 課業이 必然的으로 優先되어야 하기 때문에 傑出한 文人的 排出을 기다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國初의 安定 基調가 構築되면서부터, 基本儒教의 屬性은 그 위에 理論的인 學說이나 花樣한 文章으로 찬란한 文化的 花을 피우게 된다.

光宗代에서 비롯한 科舉制의 實施, 崔沖으로 대표되는 私學의 興起, 穩宗·仁宗의 好學 등이 모두 이 文學儒教에 힘입은 것이며, 高麗의 文風이 크게 떨치어 빛나는 詞章學의 傳統을 보게 된 것도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光宗 9년에 실시된 科舉制度는 後周의 歸化人인 變糞를 知貢舉로 하여 試驗을 보인 것이 그 처음이거니와, 이때의 科舉는 製述科(進士科)와 明經科의 兩大業이 있었고 雜科로서 醫業·卜業 등이 있었다.<sup>12)</sup>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科試 科目이 무엇이냐에 있다. 製述科에서는 詩賦·頌·時務策 등 詞章이 主宗이었으며 明經科에서는 經典을 의우는 것이 중요한 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科試 科目的內容은 그 時期에 따라 다소의出入이 있기는 하였지만 兩大業中에서도 詞章을 課하는 製述科가 明經科보다 重要視되었으며, 1032年에

11) 成樂熏, 韓國思想論稿 p. 84 參照

12) 高麗史志卷 第27 選舉 1

새로이 實施된 國子監試(朝鮮時代의 進士試)에 있어서도 科試 科目은 모두 詞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科學制度의 偏向은 당시 士風의 向方을 크게 자극하였던 것이며, 詞章을 崇尚한 高麗時代 文風의 所由來를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史實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詩를 傳하고 있는 이 時期의 人物로는 初期의 吳學麟·崔承老에서 비롯하여 張延祐·崔冲·崔淪·李資諒·李顥·崔奭·朴寅亮·金緣·崔惟善·郭璵·權適·李賚玄·印份·金富軾·金富儀·鄭襲明·高兆基·鄭知常·崔惟清 등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가운데서도 詩史에서 문제삼을 만한 詩人은 張延祐·朴寅亮·郭璵·金富軾·鄭襲明·高兆基·鄭知常·崔惟清 등이 고작이다. 詞章學 200년의 傳統에도 불구하고 麗初의 詩史를 그토록 空虛하게 한 것은, 詩人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傳承者에게 책임이 있다.

個人의 文集이 거의 있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詩作의 傳承은 後代人の 收拾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초의 選拔冊子로 알려지고 있는 金台錄의 東國文鑑이 高麗末期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內容도 疏略했던 것으로 보인다. 崔灝의 東人之文도 朝鮮初期에 이미 散逸된 것이 많았으며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東人之文四六은 選文集일 뿐이다. 十鈔詩는 基本적으로 唐詩選集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詩作으로는 遣唐遊學生의 詩篇이 거기에 몇 首 끼어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三韓詩龜鑑은 筆寫本으로 전하고 있거나와 그 內容도 빈약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다. 東文選을 비롯한 朝鮮時代의 選拔冊子는 모두 15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400年前 麗初의 詩篇이 온전하게 收拾되기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本稿의 課題가 晚唐과의 영향 관계를 문제삼는데 主眼이 있으므로 이 時期 詩人的 구체적인 작품은 다만 朴寅亮·鄭襲明의 것을 檢證하는데서 그치기로 한다.

朴寅亮(?~숙종 1, ?~1096)은 文宗때 科擧에 급제하여, 文·順·宣·獻·肅 五朝를 歷事하였다. 文宗 이후 肅宗까지의 70여년은 崔沖·李子淵·金觀을 頂點으로 하는 崔·李·金 三姓이 全盛하였으나 그 밖에도 朴寅亮·金緣(仁存) 같은 名士들이 있어 國交에 크게 寄與하였다. 金緣도 詩才가 있었다고 하나 東文選에 七律 2篇이 전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朴寅亮은 文辭가 雅麗하여 宋과 遼에 보내는 告奏表狀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文宗 29年(1075)에 陳情表를 遼主에게 올려 國境紛爭을 끝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文宗 34年(1080)에 宋에 使臣으로 갔을 때同行했던 金觀과 함께 尺牘·表狀·題詠이 宋人們에게 높은 評價를 받았으며 兩人の 詩文集을 刊布하여 小華集이라 했다고 한다. 宋의 文化가 絶頂에 이르기 시작한 元豐年間(神宗)에 이러한 賛揚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馬端臨의 文獻通考에도 朴寅亮·金梯·李絳孫 등의 唱和詩集인 高麗詩三卷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詩作으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伍子胥廟」(七絕)와 「使宋過泗州龜山寺」(七律)를 볼 수 있을 뿐이며, 한편 「伍子胥廟」는 「浙江」(青丘風雅)으로, 「使宋過泗州龜山寺」는 「金山寺」(補闕集)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使宋過泗州龜山寺」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험한 바위 괴상한 돌 겹친 그대로 산인데  
위에는 蓮塘이 있어 물이 사방으로 돌렀네

塔 그림자 江에 거꾸러져 물결 밑에 일렁이고  
풍경소리 달을 혼들어 구름 사이에 떨어진다.

문앞의 나그네 배엔 파도가 저리 급한데  
대나무 아래 중의 바둑은 대낮에도 한가롭구나

사신의 임무를 면 몸, 이별을 어쩔수 없어  
시 한수 남기고 다시 오기 기약하네

嶺巖怪石疊成山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浪底 碧聲搖月落臺間

門前客棹洪波急 竹下僧幕白日闇  
—奉皇華堪惜別 更留詩句約重攀

이 작품은 「伍子胥廟」와는 달리 修飾에用工하고 있는 훈적이 역력하여 晚唐의 繖巧를 확인케 한다. 頸聯이 佳句로 불리고 있으며 對句의 造成이 특히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白雲小說·補闕集·東人詩話 등 初期의 詩話·批評書에 모두 言及되고 있으며, 崔致遠의 「登潤州慈和寺」, 朴仁範의 「涇州龍朔寺」와 더불어 中國에서 인정받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東人詩話에서는 領聯과 頸聯이 方輿勝覽에 登載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케 한다. 그러나 領聯은 唐 高駢의 「山亭夏日」詩 중에서 “綠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을 點化한 것이 아닌가 의심남직하다. “門前客棹洪波急”의 “洪波急”은 後代의 詩選集에서 “洪濤疾”로 고쳐져 전하기도 한다.

鄭襲明( ? ~의종 5, ? ~1151)은 學問에 침쓰는 한편 文辭에 특히 能하여 벼슬이 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오래 동안 諫職에 있었으므로 謹臣의 風이 있어 毅宗이太子로 있을 때 극진히 보호하였으므로 仁宗이 東宮의 師傅로 삼았다고 한다. 毅宗이 即位한 뒤에 謙訴를 입어 飲毒自盡하였다. 鄭襲明에게는 특히 詩에 읽힌 佳話가 많아, 그의 詩는 모두 3首를 남기고 있을 뿐이지만, 그 代表作으로 꼽히는 「石竹花」와 「贈妓」詩도 모두 사연이 있는 것들이다.<sup>13)</sup> 「石竹花」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 모두들 모란꽃 붉은 것만 좋아하여  
원 풀에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누가 거칠은 이 草野에  
좋은 꽃 있는 줄 알기나 하겠나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깨뚫고  
향기는 언덕 나무의 바람에 불어 전하네

13) 李仁老, 破闕集 卷下 參照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貴公子 적어  
아릿다운 자태를 농부에게 불이네

世愛牧丹紅 栽培滿院中  
誰知荒草野 亦有好花叢  
色透村塘月 香傳臘樹風  
地偏公子少 嫣態屬田翁

때마침 大闕이 이 詩를 외우다가 大闕에까지 傳해지게 되어 그가 玉堂에 補任되었다는 逸話가 破閑集에 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다면 「石竹花」는 바로 鄭襲明의 出世作이 된 셈이다. 평범한 散文 組織을 聯想케 하는 句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작품의 謔喻技法은 높은 수준을 보인다. 草野에 묻혀 사는 자신의 處地를 石竹花(패랭이꽃)에 비유하여 世俗에서 사랑을 받는 牧丹과 對應시키면서 정돈된 모습을 보인다. 唐, 孟浩然이 일찌기 直截하게 읊어 낸 “不才明主棄 多病故人疎”<sup>14)</sup>에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이 작품이 만약 崔孤雲의 「蜀葵花」를 읽고 點化한 것이라면, 그 匠人的 솜씨는 더욱 칭찬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蜀葵花」의 다음 聯들을 다시 읽어 보면 「石竹花」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點化하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쓸쓸한 외진 곳 거친 밭두덕에  
탐스런 꽃송이 어린 가지 휘게 하네

.....

.....

수레 탄 높은 손님 뉘 와서 보리오  
벌나비만 부질없이 서로 엿보네

천한 곳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이 버려둔 것 참고 견디네

14) 「歸終南山」(五律)의 領聯. 이 詩를 듣고 唐玄宗은, “卿不求我 我豈棄卿”이라 하여 벼슬을 求하지 않은 것을 도리어 탓하였다 한다.

寂寂荒田側 繁花壓柔枝

.....

車馬誰見賞 蜂蝶徒相窺

自慚生地賤 堪恨人棄遠

이 작품은 꾸민 것이 도리어 흄집처럼 보이리 만치 淺薄하지만, 「石竹花」는 이러한 어려운 곳도 순하게 극복하여 세련된 諷喻의 숨씨를 誇示하고 있다.

### 2·3. 鄭知常과 捏體詩

鄭知常( ? ~ 인종 13, ? ~ 1135)은 叛逆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金富軾에 의하여 斬殺을 당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을 뿐, 그 밖의 구체적인嫌疑內容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에서도 同情的이다. 따로 立傳을 하지는 않았지만, 叛逆 妙清傳<sup>15)</sup>에서 그 略傳을 신고 있으며 특히 그의 詩에 대해서는 批評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知常初名之元 少聰悟 有能詩聲 據魁科 歷官至起居注 人言 富軾素與知常齊名 於文字間 積不平 至是托於內應殺之 知常為詩 得晚唐體 尤工絕句 詞語清華 韻格豪逸 自成一家法

이것이 略傳의 전부다. 이 記錄에 따르면, 鄭知常은 文字의 시샘 때 문에 역을하게 회생된 詩人일 뿐이다. 鄭知常과 가장 가까운 時代의 詩話書인 破閑集에서, “熒陽補闕” “姓鄭者 忘其名” 등으로 이름 밝히기를 거리어 姓만으로 鄭知常의 詩를 紹介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對照를 보인다.

鄭知常의 詩는 後世의 好專家들에 의하여 많은 逸話를 남기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有名하지만, 그러나 그의 詩에 대하여 深度 있게 論評을 보인 것은 崔滋가 그의 補閑集에서<sup>16)</sup>

15) 高麗史列傳 卷40 參照

16) 崔滋, 補閑集 卷上

語韻清華 句格豪逸 讀之使煩襟昏眼 洒然醒悟 但雄深巨作乏耳

라 한 것이 先聲에 속한다. 高麗史에서 知常의 詩를 論한 것도 여기서 따온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이로써 보면 鄭知常의 詩風은 晚唐을 배워서 絶句에 뛰어나고 있으며(現存하는 詩篇만 보면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語韻이 清華하고 句格이 豪逸하다는 것으로 묶어질 수 있다. 成倪이 鄭知常의 詩를 가리켜 “빛나기는 하지만 드날리지 못한다. (能曇而不揚)”라 한 것도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後代의 批評에서 그의 詩를 가리켜 “流麗” “婉麗”한 것으로만 일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崔滋의 그것과 同軌의 것이며, 그의 詩作에 “雄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도 이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鄭知常의 詩世界를 가장 感動的으로 지적한 것은 조선 후기의 申緯가 아닌가 한다. 그는 그의 東人論詩絕句에서 鄭知常의 「送人」과 李穡의 「浮碧樓」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偉丈夫前竊窕娘”이라 했다. 아릿다운 竊窕淑女(知常)와 훤칠한 偉丈夫(李穡)를 對比시키고 있는 것이다.<sup>17)</sup>

鄭知常의 詩作 가운데서 詩選集에 전하고 있는 것은 모두 13篇에 지나지 않지만 篇篇이 모두 널리 알려진 絶唱이다. 그 가운데서도 「西都」(七絕) · 「醉後」(七絕) · 「大同江」(七絕) · 「團月驛」(七絕) · 「長源亭」(七律一七絕도 있음) · 「題登高寺」(七律) · 「開聖寺 八尺房」(七律) · 「邊山蘇來寺」(七律) 등이 특히 名篇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7言이다. 「大同江」과 「開聖寺」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大同江〉

비 개인 긴 뚝엔 풀빛 더 파란데  
南浦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린다.  
대동강 저 물은 언제나 다할 것인고  
해마다 흘린 눈물로 푸른 물결 더하네

17) 申緯, 申紫霞詩集 卷第五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이 작품은 「大同江別曲」「送友人」·「送人」(五律「送人」은 단 작품)등 단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별의 노래로서 가장 많이 불리었으며, 後人의 次韻詩도 最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李達·崔慶昌·申緯의 것이 특히 유명하다. 結句의 “添綠波”는 原詩의 “添作波”를 李齊賢이 그렇게 고치도록 한 것이다.<sup>18)</sup> 그리고 “送君南浦動悲歌”도 破闕集에는 送君千里動悲歌로 되어 있어, “南浦”와 “千里”的 先後關係는 確言하기 어렵다.

「大同江」은 鄭知常의 더벅머리 시절에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나 와<sup>19)</sup>, 많은 前人們의 詩作이 이 한 篇에 녹아 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면서도 萬古의 絶唱으로 높은 稱譽를 받아 온 것은 분명히 그의 權能에 속한다. 唐, 王維의 “送君南浦淚如絲”<sup>20)</sup>나 盧綸의 “登山路何時盡”, 朴仁範의 “人隨流水何時盡”, 杜少陵의 “別淚遙添錦水波”<sup>21)</sup> 등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썼어진 이를 詩作을 모방하였을 것으로豫想되지만, 산듯한 이별의 노래로 再造成한 그의 솜씨는 逸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기 承句에서 結句로 연결하는 反轉의 手法은 이 詩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大同江水가 다하는 날이면 이별의 슬픔도 있지 않으련만, 도리어 해마다 이별하는 눈물로 해서 무른 강물만 보태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 〈開聖寺八尺房〉

百步에 아홉번 돌아 높은 산에 올랐더니  
허공에 집 몇칸이 떠 있을 뿐이네

18) 李齊賢, 樂府釋說 後集二

19) 李仁老, 前揭書

20) 世昌書館, 唐音에 의함

21) 徐居正, 東人詩話(上), 补闕集(上)에도 言及되고 있거니와, 이는 杜甫의 七律「奉寄高常侍」의 落句다.

맑디 맑은 산물은 찬물로 떨어지고  
暗淡한 낡은 벽엔 푸른 이끼 얼룩졌네  
돌머리 소나무는 한조각 달에 늙어 있고  
하늘 끝 구름은 千點 山에 나직하다.

세상 만사 이곳엔 이를 수 없으니  
숨어 사는 사람만이 오래 오래 한가롭겠네

百步九折登巔阮 家在半空惟數間  
靈泉澄清寒水落 古壁暗淡蒼苔斑  
石頭松老一片月 天末雲低千點山  
紅塵萬事不可到 幽人獨得長年間

鄭知常의 詩作 가운데는 寺刹이나 樓亭을 素材로 한 것이 많거니와, 그의 景物詩를 대할 때마다 항상 한폭의 스케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流麗하게 썹아낸 寫景의 솜씨는 文字 그대로 一唱三嘆의 감동을 어쩔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그의 趣向은 老莊을 좋아하는 삶의 본바탕과도 無關하지는 않을 성 싶다.

그의 名篇은 대부분 勉體句로써 成功하고 있으며 이 작품도 그러한 技法을 示範한 것 중에 하나다. 徐居正이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sup>22)</sup> 勉體란 平字를 놓을 자리에 仄字를 바꾸어 쓰는 것이며 그것이 노리는 것은 語氣를 奇健 拔群케 하는데 있다. 勉體로써 佳句를 엎은 그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 표가 勉體의 例).

地應碧落不多遠 僧與白雲相對閑 (題登高寺)  
石頭松老一片月 天末雲低千點山 (開聖寺八尺房)  
綠楊閉戶八九屋 明月捲簾兩三人 (長源亭)  
浮雲流水客到寺 紅葉蒼苔僧閉門  
秋風微涼吹落日 山月漸白啼清猿 (邊山蘇來寺)

晚唐人们이 이 體를 즐겨 썼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鄭知常이 그

22)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妙理를 얻었을 뿐이다. 그밖에 金匱도 이를 愛用했다 하나 그 實例를 보지 못한다. 李眸光이 그의 芝峰類說에서<sup>23)</sup> 拗體를 例證한것도 이 가운데서 뽑은 것이다. 그러나 樂翁稗說에는 “僧與白雲相對閑”的 “僧”이 “人”으로 되어 있으며 “明月捲簾兩三人”은 “明月倚樓三四人”으로 적고 있어 이 또한 선후관계는 확실치 않다.

### 3. 羅末麗初詩의 晚唐과의 거리

羅末麗初의 驟壇이 晚唐과 六朝 사이를 往來하면서 文學儒敎의 自由奔放한 風土에서 成長할 수 있었기 때문에 詞章學이 멀칠 수 있는 與件은 우리 文學史에서 보기 드문 好況을 맞이한다. 그러나 당시의 詩人們이 晚唐을 배우고 六朝에 戀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익혀서 그것들을 우리 詩로서 變容할 수 있었는지 그 現場을 點檢하는 것도 無意味하지는 않다. 물론 한두 首의 詩作을 對比시켜 그 影響關係를 짐치거나 速斷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晚唐과의 거리를 測定하는 作業은 羅末麗初詩의 真正한 모습을 이해하는 노력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晚唐詩의 特色이나 羅末麗初詩의 일반적인 性格은 이미 앞에서 보이었거니와, 그 많은 晚唐의 詩作들을 일일이 涉獵하여 우리 詩와의 親近度를 가늠하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며, 그 의미도 부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晚唐의 대표적인 詩人으로 꼽히는 李商隱을 비롯하여 鄭谷·韋莊·高駢 등 일부 詩人과 그밖의 唐代詩人們을 대상으로 하여 그 분위기가 많아 있거나 詩語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서로 맞대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作品의 一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晚唐 이전의 작품도 참고자료로 불여 그 路襲의 現場을 檢索해 보았다.

23) 李眸光, 芝峰類說 卷13 文章部 6

- ① 江雨霏霏江草齊 六朝如夢鳥空啼  
 無情最是臺城柳 依舊煙籠十里堤  
 (韋莊, 金陵圖)
- ②-1 楊子江頭楊柳春 楊花愁殺渡江人  
 故聲風笛離亭晚 君向瀟湘我向秦  
 (鄭谷, 淮上與友人別)
- ②-2 汝上相逢年頗多 飛鵬無那故人何  
 .....  
 天涯春色催遲暮 別淚遙添錦水波  
 (杜甫, 奉寄高常侍)
- ③-1 送君南浦淚如絲 君向東州使我悲  
 (王維, 送別)
- ③-2 紫陌金堤映綺羅 遊人處處動離歌  
 (翁綏, 折楊柳)
- ④ 登登山路何時盡 決決溪水到處聞  
 (盧綸, 山店)
- ⑤ 燈據螢光明鳥道 梯回虹影到岩局  
 人隨流水何時盡 竹帶寒山萬古青  
 (朴仁範, 涇州龍朔寺)
- ⑥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鄭知常, 大同江)
- ⑦ 緑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  
 (高駢, 山亭夏日)
- ⑧ 石壁戰聲飛霹靂 瑞峰倒影撼芙蓉  
 (崔致遠, 潮浪)
- ⑨ 嶲岩怪石疊成山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浪底 碧聲搖月落雲間  
 (朴實亮, 使宋過泗州龜山寺)
- ⑩ 曉鏡但愁雲鬢改 夜吟應覺月光寒  
 (李商隱, 無題)

⑪ 麋衣難拂路歧塵 髮改顏衰曉鏡新

(崔匡裕, 長安春日有感)

⑫ 紫陌紅塵拂面來 玄都觀裡桃千樹

無人不道看花回 盡是劉郎去後栽

(劉禹錫, 自朗州至京戲贈諸君子)

⑬ 紫陌春風細雨過 輕塵不動柳絲斜

綠窓朱戶笙歌咽 盡是梨園弟子家

(鄭知常, 西都)

⑭ 衆鳥高飛盡 相看兩不厭

孤雲獨去閒 只有敬亭山

(李白, 敬亭山)

⑮ 俗客不到處 登臨意思清

山形秋更好 江色夜猶明

白鳥高飛盡 孤帆獨去輕

自慚蝸角上 半世覓功名

(金富軾, 甘露寺次惠遠韻)

위의 예에서 보면, 章莊의 「金陵圖」(1)와 鄭谷의 「淮上與友人別」(2), 그리고 鄭知常의 大同江(3)은 그 분위기에 있어서 너무도 가까운 거리를 느끼게 한다. 「大同江」은 “江雨霏霏江草齊 依舊煙籠十里堤”에서 봄비가 지나간 강뚝의 小景을 取하고 “揚子江頭揚柳春 君向瀟湘我向秦”에서 濃渡 짙은 離別의 抒情을 끓어 내어 「大同江」의 분위기를 抒情의 小景으로 무르 익게 한다. 더우기 鄭知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王維의 “送君南浦淚如絲”(3-1)와 翁綬의 “遊人處處動離歌”(3-2) 그리고 廬綸의 “山路登登何時盡”(4), 朴仁範의 “人隨流水何時盡”(5) 등, 晚唐 이전의 唐詩에서부터 우리 詩에 이르기까지, 그 蹤襲이 예상되는 詩語들을 따서 쓰고 있으며, 그 所由來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杜甫의 「奉寄高常侍」詩(2-2)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모방의 수준에서 뛰어 넘어서 點化의 極致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劉禹錫(中唐)의 「自朗州至京戲贈諸君子」(12)와 鄭知常의 「西都」(13)는, 前者の 叙情이 動的인데 반

하여 後者의 그것이 靜的인 差異는 발견되지만, 詩人이 느낀 雾圍氣 感情은 너무도 닮아 있는 것을 또 알게 해 준다. 그러나 西都詩의 “紫陌  
春風細雨過 輕塵不動柳絲斜”는 補闋集에 “南陌風微細雨過 輕塵不動柳陰  
斜”로 되어 있어 그 原形을 確認할 수 없다.

다음의 것들은 踏襲한 인상은 지울 수 없지만, 斧鑿의 흔적 없이 自己詩로서 소화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高駢의 “綠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7)과 崔致遠의 “石壁戰聲飛  
霹靂 雲峰倒影撼芙蓉”(8), 朴仁範의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倒岩局”  
(5) 朴寅亮의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浪底”(9) 등은 前人의 詩作을  
본뜬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釀出한 點化의 솜  
씨는 높이 評價하고 싶은 것들이다.

다음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李商隱의 “曉鏡但愁雲鬢改 夜  
吟應覺月光寒”(10)과 崔匡裕의 “麻衣難拂路岐塵 鬢改顏衰曉鏡新”(11)을  
보면 崔匡裕의 “鬢改顏衰曉鏡新”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한 눈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참고로 보인 金富軾의 「甘露寺次惠遠韻」은 盛唐의 멋  
을 誇示하기 위하여 李白의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閑”(14)을 頸聯에 읊  
겨 “白鳥高飛盡 孤帆獨去輕”(15)으로 읊어 보았지만, “孤帆獨去輕”的  
浮薄으로써 “白鳥高飛盡”을 받쳐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孤·  
獨·輕”이 모두 겹치고 있어 “孤獨閑”的 韵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中國詩를 배우고 익히어 우리 詩로 受容하는 過程에서  
勘耐해야만 했던 우리나라 初期 詩人們의 苦腦가 얼마나 깊었던가를 읽을  
수 있다.

## 5. 結 言

羅末麗初는 우리나라 漢詩의 序章을 열어준 時期다. 羅末의 遊學生들이 大量으로 中國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漢詩를 體驗한 것이 이에이며, 이러한 前代의 詩業에 힘입어 麗朝詩의 倡始者들이 우리나라 漢詩의 基盤을 이룩한 歷史段階로서도 이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羅末麗初詩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 이것들이 한데 묶여질 수 있는 共分母를 찾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中國詩를 受容하는 과정에서 勸耐해야만 했던 羅末麗初 詩人們의 苦腦를 읽기 위하여, 그 대표적인 詩人의 詩作과 中國의 唐詩들을 對比시켜 그 거리를 測定해 본 것이다.

그리하여, 羅末麗初는 王朝史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18년이나 되거나 와 그들의 詩業에 있어서도 羅末의 入唐遊學生들이 직접 體驗한 晚唐의 風尚이 麗初의 風尚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羅末의 詩人們은 바로 앞 時期의 中唐이나 盛唐을 뛰어 넘어 六朝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도 찾아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六朝의 〈文選〉이 太學의 教材로서 또는 科試 科目으로 採擇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연한 추세였을 것으로 보아지며 六朝의 細麗와 晚唐의 細靡가 사실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詩作이 六朝와 晚唐 사이를 往來하게 된 것도 당연한 鑄結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習作期의 詩人們에게는 格調 높은 盛唐을 배운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라 는 사실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本稿의 關心은, 당시의 우리나라 詩人們이 中國詩를 受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智慧와 忍苦를 읽는데 있었다. 때로는 그 雾團氣를 모방하고 때로는 一字一句 그 由來處가 분명한 詩語들까지 踏襲하면서 우리 詩를 제조하는데 成功하고 있는 粗點의 妙를 찾아본 것이다.